

농협금융, AI 거버넌스 구축 나서…그룹 표준안 착수

등록 2026.05.13 13:22:57



12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 본사에서 AI 거버넌스 수립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. (사진=농협금융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이정필 기자 = NH농협금융지주는 인공지능(AI) 거버넌스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.

농협금융은 향후 일관된 AI 활용 원칙과 책임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. 앞으로 약 8개월간 그룹 표준안을 마련하고, 은행·보험·증권·캐피탈·저축은행 등 계열사별 내재화 작업을 거쳐 AI 거버넌스를 종합 설계할 예정이다.

조직·리스크·내부통제·정보기술(IT)·정보보호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전사적 추진체계도 가동한다.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종 내규와 프레임워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설계할 방침이다.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과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,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oma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